

LINC+와 창업교육 방향

2017. 9. 22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실장

최 태 진

CONTENTS

I 대학 창업교육의 필요성

II LINC 사업 및 성과

III LINC+사업 추진방향

IV 한국형 I-Corps 사업

V 대학 창업교육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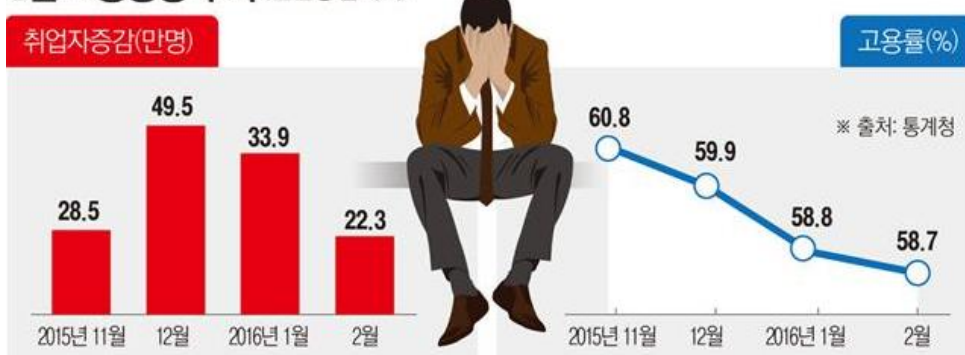
I. 대학 창업교육의 필요성

○ 대학 창업은 '고급 일자리 창출'의 핵심

청년 실업자 50만명 - 청년 실업률 9.4%, (한국경제, 2017.09.13)

[청년 실업률 1999년 이후 최고치]

2월 고용동향 추이 (전년동월대비)



청년층 (15~29세) 실업률 추이



- 창업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에 불과하나 새로운 일자리의 약 20%는 창업기업이 창출
- 우리나라의 창업기업 생존율이 낮고 사회 전반적 창업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창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창업교육 시스템 부재가 문제



LINC사업 및 성과

(창업교육 성과)

1 기존 LINC사업 개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학('16년 57개교)

사업 기간

'12년~'16년 / 5년(2+3년)

* (1단계 2년) 산학협력 선도모델 기반조성 및 내실화, (2단계 3년) 산학협력 선도모델 성과 창출 및 확산

주요 사업 내용

[VISION]

- ✓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분야 선정
- ✓ 지역산업 여건 및 대학증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

[SYSTEM]

- ✓ 산학협력 진화형 대학 체질 개선
- ✓ 산학협력단 역할 및 위상 강화
- ✓ **창업교육** 및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
- ✓ 산학협력 인프라 확충

LINC

[COMPONENT]

- ✓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
- ✓ 지역산업 및 산학협력 유형에 따른 특
성화된 취업/**창업 교육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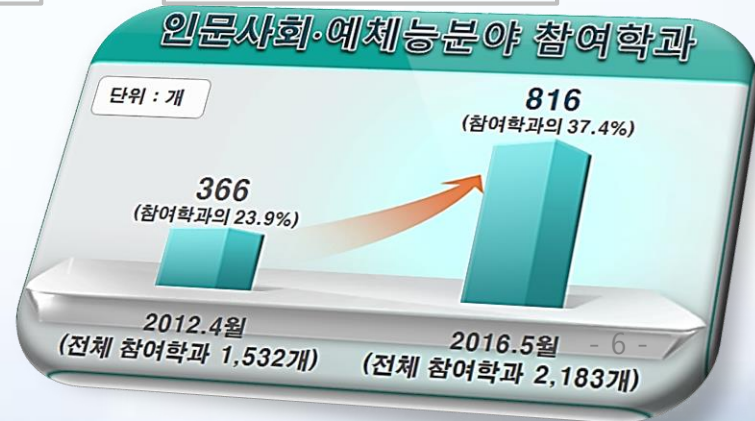
[LINK]

- ✓ 산업계재직자교육, 기업애로기술자문및경영
등을통한맞춤형기업지원
-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수행등을통한기업지원
과학생취업연계

2 기존 LINC사업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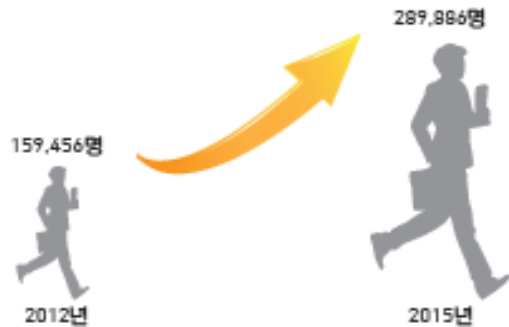
정량적 성과

지표명	사업개시 전('12.2)	'17.2월
산학협력실적의 연구실적 대체율	70%	92.5%
현장실습 학생수	1.2만 명	4.0만 명
캡스톤디자인 이수학생 수	4.2만명	10.4만명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670건	2,068건
창업강좌 시수	41시간	123.2시간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수익	235억원	352억원
가족회사 수	2.4만개	6.4만개
기술이전 건수 및 수입	603건/104억원	2,551/308억원



[참고] 창업 교육실적(대학 전체)

창업강좌 이수학생 수



2012년 대비 창업강좌 이수학생 수는 81.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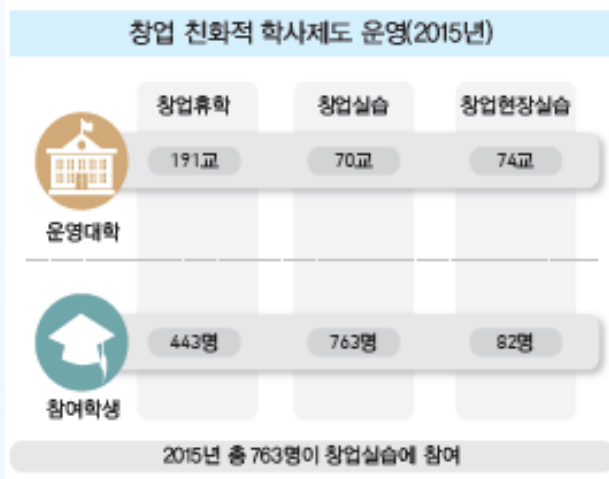
창업동아리 참여학생



2012년 대비 창업동아리 수는 126.6%, 참여학생 수는 69.8% 증가

- (2015년) 창업강좌 개설학교
: 전년대비 3.6%증가(281개교 → **291개교**)
- (2015년) 창업강좌 이수학생 수
: 전년대비 33.1%증가(217,734명 → **289,886명**)
- (2015년) 창업강좌 수
: **291개 대학 4,262개** 개설(대학당 14.6개)
: 창업강좌 개설대학의 전체 재학생의 16.6%가 창업강좌를 수강
: 이론형 강좌 → 3,185개(74.7%),
실습형 강좌 → 1,077개(25.3%)
- (2015년) 창업동아리 수
: **261개 대학에서 4,380개의 동아리 운영**
(평균 16.8개의 동아리)
: 전년 대비 각각 18.7% 증가(3,690개 → 4,380개)
- (2015년) 창업동아리 참여 학생 수
: 전년 대비 3.2% 증가(37,407명 → 38,588명)
: 2012년 22,730명에서 2015년 38,588명으로 꾸준히 증가

[참고] 창업 교육실적(전체 대학)



□ 창업휴학제

- 창업휴학제 시행대학: 2013년 68개 → 2015년 **191개**(181% 증가)
- 창업휴학제 신청학생수: 2013년 45명 → 2015년 **214명**(884% 증가)
- (2015년) 대다수 대학들이 24개월(2년)을 창업휴학제 휴학기간으로 규정화
 - 최대휴학기간 → 60개월, 최소휴학기간 → 12개월

<창업학과 개설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감율 (%)
	빈도(개)	빈도(개)	증감율(%)	빈도(개)	증감율(%)	빈도(개)	증감율(%)	
개설학교	12	13	8.3	20	53.8	22	10.0	22.4
개설학과	13	14	7.7	21	50.0	23	9.5	20.9
입학정원	772	871	12.8	1,317	51.2	1,514	13.0	25.2
전담교원	101	113	11.9	206	82.3	231	10.8	31.8

※ 출처 : 2015 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중소기업청).



LINC+사업 추진방향

(산학협력 고도화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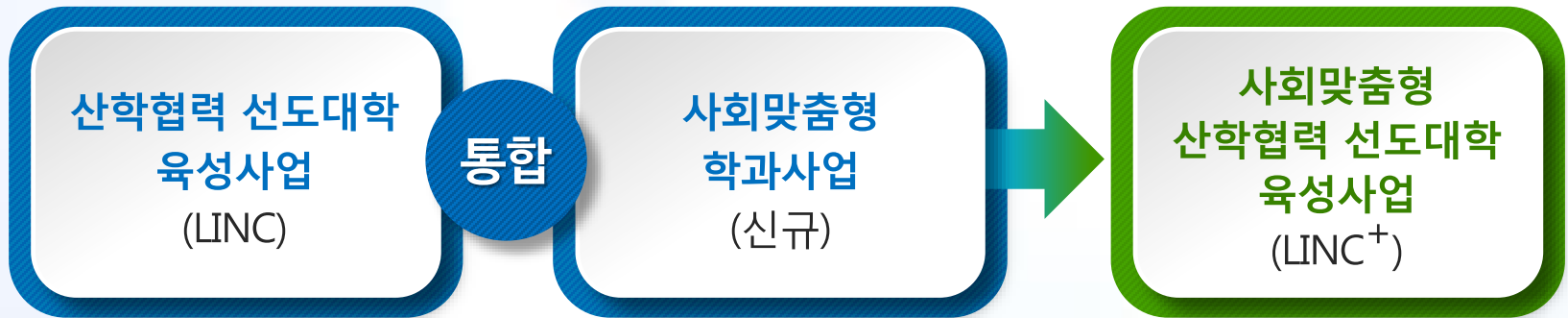
1 개편 개요

LINC 사업 확대·개편



LINC+ ('17~)

- “LINC사업”과 “사회맞춤형학과 사업(신규)”을 통합하여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사업(LINC 플러스)**” 신규추진('17~'21)



» 협력대상 : 기업 중심 + **지역사회**

» 협력분야 : 공학계열 중심 + **인문·사회·예술**

» 참여대상 : 학부 중심 + **대학원** 산학협력 지원

사업개요

사업명칭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추진 예산

‘17년 예산안 기준 2,383억 원

(산학협력 고도화형) 55개교, 교당 평균 약 3,897백만원 내외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20개교, 교당 평균 약 1,100백만원 내외

추진 기간

‘17년~’21년 (2+3년)
2년 지원 후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산업선도형 대학’육성을 위해
산학협력의 자율성,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대학의 취·창업역량 강화

1. 산학협력의 자율성 확대 및 다양화

대학 자율성 확대

각 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따른 자율적 사업모델 설계 및 제시유도

- 기존 Top-Down 방식 → Bottom-up 방식의 사업계획 추진

산학협력분야 다양화

**문화예술콘텐츠 및 서비스분야 등
비공학 계열에 적합한 산학협력 모형 창출 및 성과지표 개발**

2.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 제고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 강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및 산업체, 지역수요 기반
현장중심 학사제도 운영**

- 산학협력 실적만으로 임용, 승진승급 등이 가능하도록 성과관리 강화

쌍방향 협력 강화

**대학 내 산학협력서비스 원스톱 기능 강화,
대학 유희시설 내 기업 입주지원 등 대학을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

- 유료회원제등급제 가족회사 확산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간 상호 호혜적 협력 강화 추진

지역산업 발전모델 구축

대학-지역사회 간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발굴

- 예시) 학교기업과 지역상공인 간 협동조합 구성 등

3. 산학협력의 개방성 및 확산성 제고

개방성 확대

LINC+ 사업 참여대학과 비참여 대학간,
사업참여 대학 내 사업단 참여학과와 비참여학과간 연계·협력 강화

대학원 산학협력 모델 개발

대학원 기술창업, 신성장·산업분야 고급 인재 육성 등
대학원에 적합한 산학협력 모델 개발 유도

산학협력의 사회적기여 측정

대학재정지원 성과를 대학 내부의 변화 뿐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산업 등에 대한 기여도로 확대

4. 사회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창업 역량 강화

사회맞춤형 교육모델 확산

기업과 대학이 다양한 형태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교육과정을
채용연계성이 강한 교육모델로 확립

-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교재개발에 기업과 대학의 공동참여와 기업 인사의 직접적인 교육 참여 등으로 교육과정에 기업 요구 반영 제도화

LINC의 인프라 활용

LINC+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회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과 사회맞춤형 인재양성 고도화 동시 추진
-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당 1~1.5억원 내외, 20~60개 과정 내외

산학협력 고도화형

산학협력 고도화형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

산학협력 고도화형

+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중점형

성과지표

1) 핵심성과 공통지표(대학 또는 사업단 전체실적)

- 취업률 변화(종합)
- 교수업적평가의 산학협력 실적 실제 반영률(연간)
- 산학협력 관련 정규직 교원 및 직원 수(연간)
- 산학연계 교육과정(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추진실적(지원실적, 학생실적)(연간)

2) 핵심성과 계열별지표(계열별 구분 산출)

- 공동활용 연구장비(지역사회 연계 장비), 운영실적(활용 기업(단체) 수, 금액 등)(연간)
- 교수1인당 산업체(지역연계) 공동연구 건수 및 연구비(연간)
- 교수1인당 기술이전 건수 및 수입료(인문사회, 예체능 제외)(연간)
- 전방위 맞춤형 기업지원 및 지역지원(자문 등) 실적(단계)
- 지역사회 혁신실적(예 :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지역유산 창출, 문화관광콘텐츠, 6차 산업지원 등)(단계)

3) 자율 성과지표(예시) : 사업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별 자율 설정

• 대학(원)생 기술창업 및 실전창업 수(매출액, 고용창출인력 등)

- 기술(지식)사업화 실적 및 유지율
- 유료회원제로 운영하는 산학협력 가족회사 운영 실적
- 산업체 재직자 핵심역량 강화 교육
- 산학공동 기술(지식)개발 실적
- 창업 재정/공간(창의 실습실 등)/인력 지원 실적
- 지역사회 기여도(인적, 물적, 재정적 기여 등 Social Impact 지표활용)

대학 창업유망팀 300



조선의 희망이다, 創GO에서 시작

IV

한국형 I-Corps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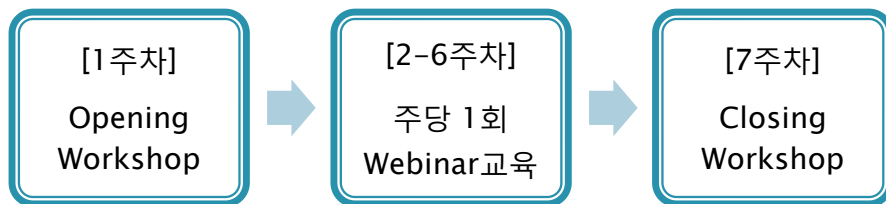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1. 미국 NSF I-Corps 프로그램 소개

[아이코어 프로그램 훈련과정의 핵심]

연구실 밖의 현장으로 가서(Get out of the Building) 잠재 고객으로부터 자신의 연구결과물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인터뷰(Customer Discovery)

▪ 교육 과정



총 10회의 교육 이외 시간에는 연구실 밖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만난 잠재고객 인터뷰에 할애

▪ 교육 방법

[Flipped Learning(역순 학습) 방식]

- 온라인을 통한 선행학습 후 오프라인 강의를 통한 토론식 강의

비디오 등 매체를 통해 **Lean Startup Process** 위주의 학습을 하고, 실제 수업은 **Business Model Canvas**를 바탕으로 한 인터뷰 결과 발표와 강사진의 혹독한 비판과 토론을 통하여 진행

R&D Investment와 Economic Outcome의 Gap

“미국에서도 큰 문제!”

- \$7 billion in Annual NSF Basic Research Funding
- \$172 billion in Annual Federal Government R&D Funding
- But Low Technology Transfer & Very Few Startups
- Big Gap Between Researchers (lab) & Customers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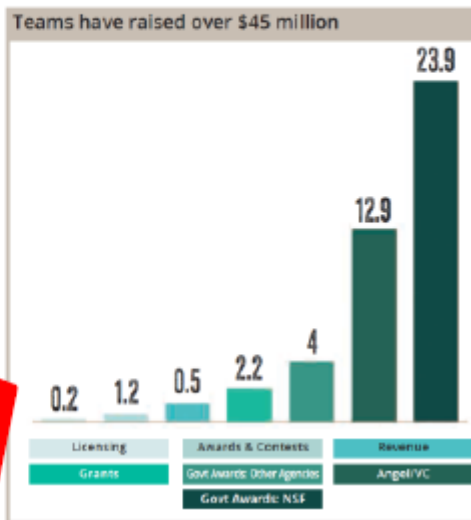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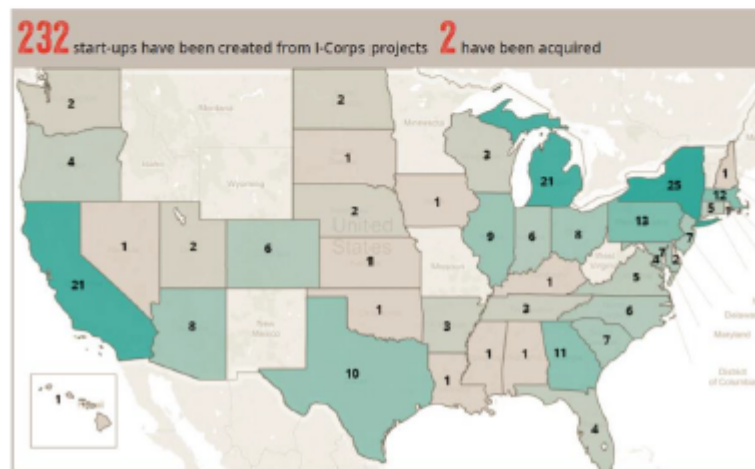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olution: “Infuse startup culture and methodologies into research lab”

NSF Innovation Corps (I-Corps)

과학기술 R&D 사업화 “실험” (2011-14)

1. 3-Person I-Corps Team (EL, PI, MT)
2. Lean Startup Methodologies
3. Customer Development Interviews – 7주간 100개
4. Pedagogical Method – “relentlessly direct pursuit of market insight”
5. Instructors – 창업경험, 강사훈련
6. Accelerator – 창업생태계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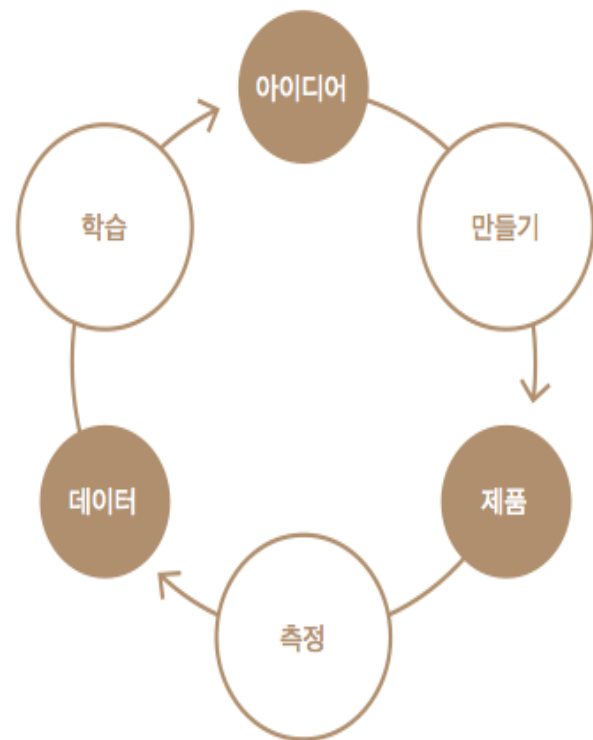


- Other important outcomes
- 411 federally funded research projects tested for market viability
 - 89 scientific experts have developed entrepreneurial curricula
 - 101 SBIR proposals awarded by NSF
 - 1st NIH Life Sciences pilot activity successfully completed
 - 1st I-Corps L pilot activity successfully completed

[아이코어의 핵심] Lean Startup – ‘생각은 크게, 시작은 작게’

[Lean Startup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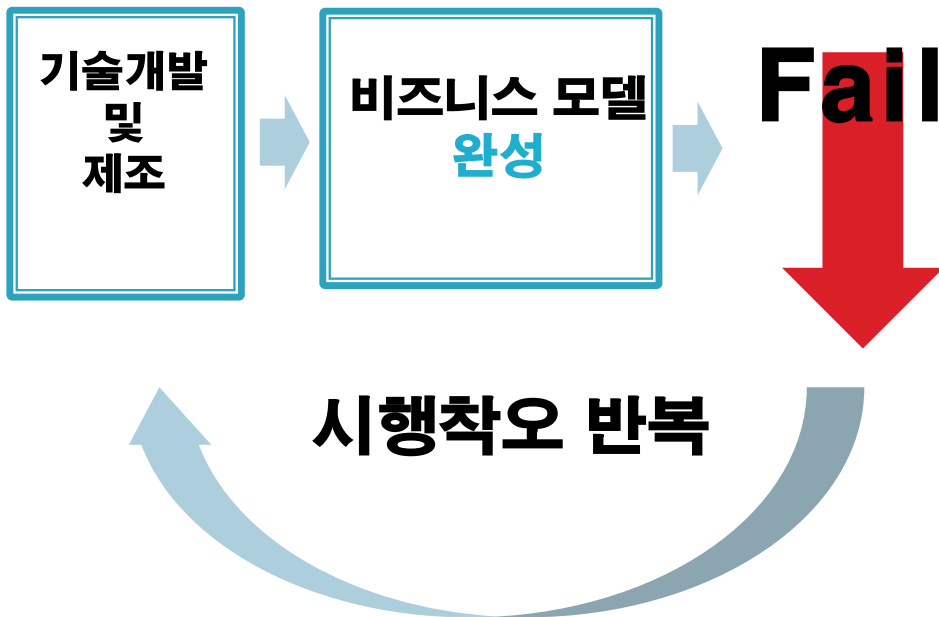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요건제품(Minimal Viable Product)으로 제조한 뒤 시장의 반응을 통해 다음 제품 개선에 반영하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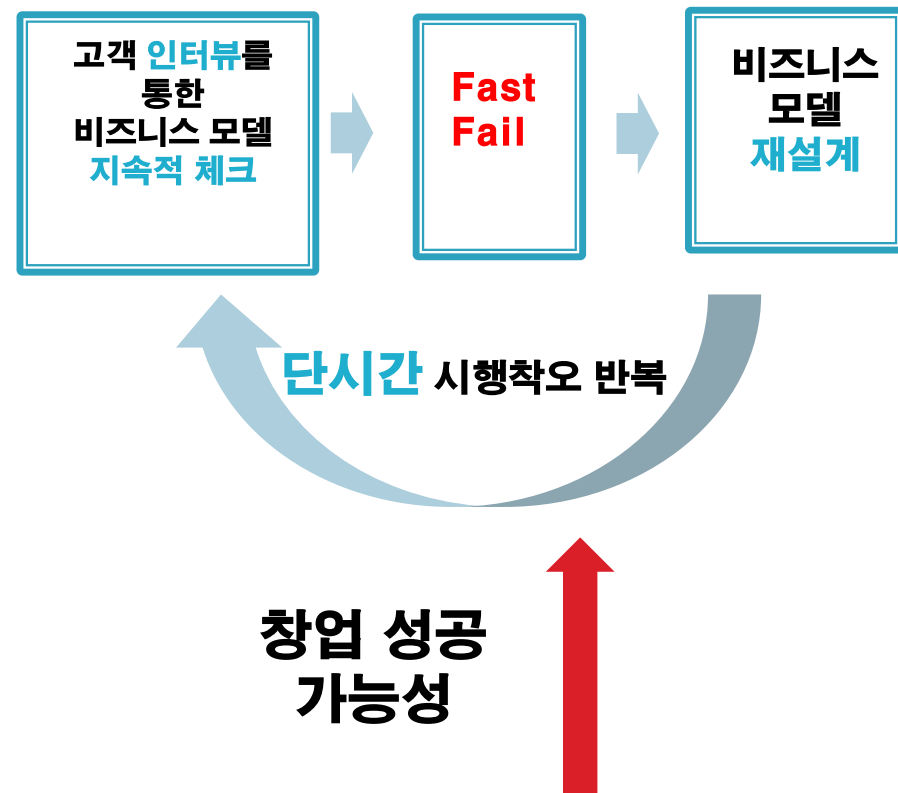
- ‘제조-측정-학습’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혁신해 나가는 것으로,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보다 ‘최소요건제품(MVP)’을 만들어 고객의 반응을 얻은 뒤 빨리 보완하는 것
- MVP를 통해 고객의 반응을 얻고, 방향이 틀렸다고 판단될 경우 ‘피봇 (Pivot)’을 통해 방향 전환하며 Business Model Canvas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 개선하는 작업을 통해 본인들의 기술이 상업화에 적합한지 여부를 배우게 됨

2. 미국 NSF I-Corps 프로그램과 타 프로그램 대비

기존의 국내 창업 프로그램



미국 NSF 아이코어



가. 한국형 I-corps 사업 지원 방향

- 대학·출연(연)이 보유·연구 중인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참여 연구원들의 시장 연계 창업탐색 등을 지원

나. 지원 대상

- 대학 및 출연(연), 연구소기업에서 공공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으로 구성된 기술 창업탐색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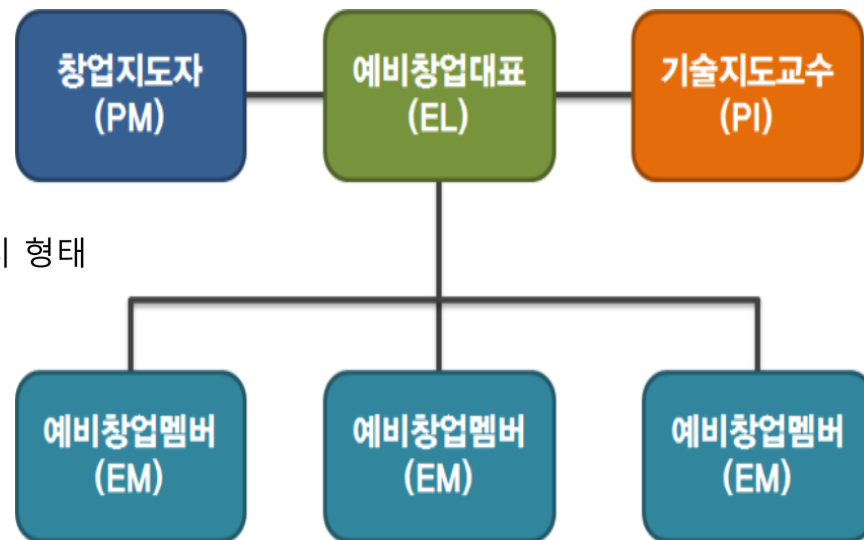
다. 기술창업탐색팀 구성

■ 참여유형

- 예비창업대표(EL, Entrepreneurial Leader)
- 예비창업멤버(EM, Entrepreneurial Member)
- 창업지도자(PM, Project Manager)
- 기술지도교수(연구원) (PI, Principal Investigator) 등 4가지 형태

■ 팀 구성 원칙

- EL, PM, PI는 반드시 1명씩 포함해야 하며, EM의 포함은 권장 사항임
(단, EM은 최대 3명까지 참여 가능)



라. 기술창업탐색팀 유형별 참가자격

유형	대학 팀	연구소 팀
예비창업대표(EL) /예비창업멤버(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박사과정 재학생(창업휴학생 가능) · Post-Doc, 연구원 (학부생은 EM으로는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연) 소속 연구원 (UST 학생 포함)
창업지도자(P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 소속 대학의 창업교육센터,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기술지주회사 등 기술창업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교원 또는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 소속 정부 출연(연) 또는 연구소기업에 기술을 출자(이전)한 연구소의 기술사업화센터 등 연구원의 기술창업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전담직원
기술지도교수(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창업탐색팀에 연구실의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였거나 향후 제공하고자 하는 대학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창업탐색팀에 연구실의 기술 및 노하우를 제공하였거나 향후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원

II. 사업 추진일정



Scientists

“처음엔 그저 돈 벌려고 창업했다. Customer Discovery 과제 하느라 자폐증 환자 부모들과 인터뷰 하면서 그들의 절절한 니즈를 보았고, 이 사업은 꼭 이루어야 한다는 다짐을 처음 하였다. 나를 위한 것이라 아니라 사회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지도해 주시는 강사, 멘토, 모두가 Passion 덩어리였다. 창업하려는 우리보다 오히려 더 열정적이었다”

“자금지원 해줄테니 창업해봐” 라는 격려는 많았지만, 막상 “창업을 위한 과학적 프로세스를 가르쳐 주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처음 이었다”

“Lab에서 막연히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customer discovery 과제 때문에 시장에 나와보니 전혀 다른 제품의 기회가 보였다.”

Science
Entrepreneurs

I-Corps 핵심과정
Customer Discovery Process 와
“Get out of the building!”을 통해서
Entrepreneurial Insight 과
Methodology를 체득





창업교육 발전방안

1. 학생 창업 = 교육 ≠ 실전창업

- 기업가정신, **개인**이 갖춰야 할 **기본 역량**

남들이 문제로 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
‘혁신적 활동을 수행’ 하고, ‘가치를 창조’ 하는 실천적 역량

기업가정신 ≠ 창업

기업가정신의 대표적 **발현 사례**가 ‘창업(Start up)이지만, 그 적용 범위가 반드시 창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후천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키워야 할 **개인의 역량**

학생은 실패할 특권이 있다

[대덕포럼] 창업경험이 가장 중요한 스펙이다

2017-02-27기사 편집 2017-02-27 11:39:22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 대덕포럼



청년의 일자리 문제해결이 시급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10.7%라고 한다. 일본(5.2%)의 2배 수준이고, 미국(11.6%)보다도 열악하다. OECD 35개 회원국 중 최근 3년간 청년 실업률이 매년 상승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곳에 불과하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다.

청년실업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창업에 있다. OECD(2013)에 의하면 창업 후 6년 이상인 기업은 매년 일자리가 감소하지만,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기업의 고용인원이 점차 줄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청년실업문제의 해법을 창업에서 찾고 있다. 비교적 창업이 활발하다는 미국도 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은 '스타트업 활성화 계획(Start-up America Initiative)'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창업자금 직접지원, 창업가정신 교육과 프로그램 확대, 각종 규제와 장애요인 제거,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력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를 보고 있다. 2010년 18.4%까지 치솟았던 미국의 청년 실업률이 2013년 15.5%, 2014년 13.4%, 2015년 11.6%로 꾸준히 줄고 있다.

중국 정부의 창업 활성화 의지도 강력하다. 대중창업, 만인혁신과 함께 대학생 창업 유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 중국은 2014년부터 2017년 4년 동안 80만 명의 대학생 창업을 목표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의 창업열풍이 뜨겁다. 중국 정부기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새로 등록된 기업은 262만개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6% 늘었다고 한다. 하루 평균 1만 4000개의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 2015년 대졸자 가운데 약 3%인 20만 4000명이 창업을 선택했다. 그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2013년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대학 창업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학의 창업 강좌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창업활성화를 위한 학사제도도 안착되고 있다.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결과(2016) 대학의 창업 동아리가 2012년 1933개에서 2015년 4380개로 126% 증가하였다. 창업휴학생 수도 2013년 45명에서 2015년 443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부분은 여전히 취약하다. 창업강좌중 이론형 강좌가 75%를 차지하고 실습형 강좌는 25%에 불과하다. 2015년 학생 창업 기업 861개 중 매출액 발생 기업은 262개에 그친다. 이들 창업기업도 혁신형 기술창업 보다는 아이디어 창업이 대부분이다.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정부와 민간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교수들의 마인드도 창업가형으로 변해야 한다. 교수들이 학생들의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수들이 직접 창업에도 참여해야 한다. 혁신형 기술창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업실패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 안전망은 창업경험을 스펙으로 인정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기업들이 실패한 창업경험을 인센티브로 인정해 준다면 많은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것이다. 창업경험을 가진 청년의 채용은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 창업 경험자들은 오히려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창업으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의 기업들은 실패에 상관없이 창업경험자를 서로 모셔가기 위해 애쓴다고 한다.

학창시절의 창업경험을 가장 중요한 스펙으로 인정해주는 문화. 설령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격려해주는 분위기. 실패는 더 큰 성공을 위한 좋은 경험이라는 사회적 인식. 창의적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창업가형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대학 문화. 이러한 문화가 청년들을 과감한 창업도전으로 이끌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동력이 될 것이다. 최태진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실장

2. 아이디어 창업 → 기술창업 중심으로

❖ 기술창업은 새로운 시장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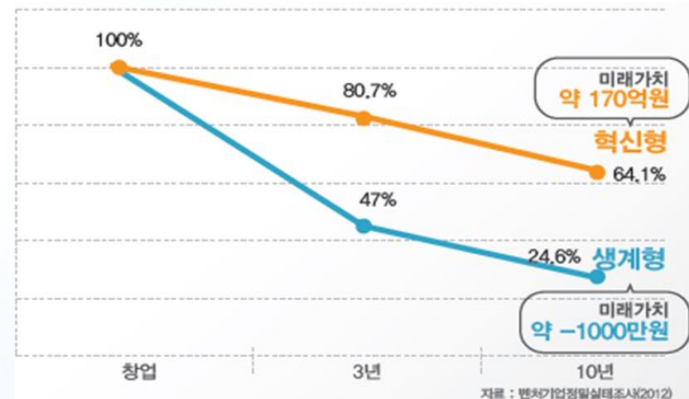
- 혁신형 기술창업은 생계형 창업에 비해 3년 생존률은 약 1.7배, 10년 생존률은 약 2.6배 높고(64% 수준), 고용 창출 측면에서 탁월
 -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 비중이 OECD 최고 수준으로 창업을 통한 안정적 고용이 어려움

OECD 회원국 창업유형 현황 (%)

구분	기회	가업	생계	기타	계
OECD평균	52	15	26	7	100
미 국	54	14	26	6	100
독 일	46	19	28	7	100
일 본	46	22	22	10	100
한 국	21	14	63	2	100

* 출처 : '2014 기업가 정신 보고서, OECD

창업 유형별 생존률






2. 아이디어 창업 → 기술창업 중심으로

우수 인력·인프라·기술을 보유한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창업 확산 필요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에 성공하여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가 증가

기술기반 창업기업 성공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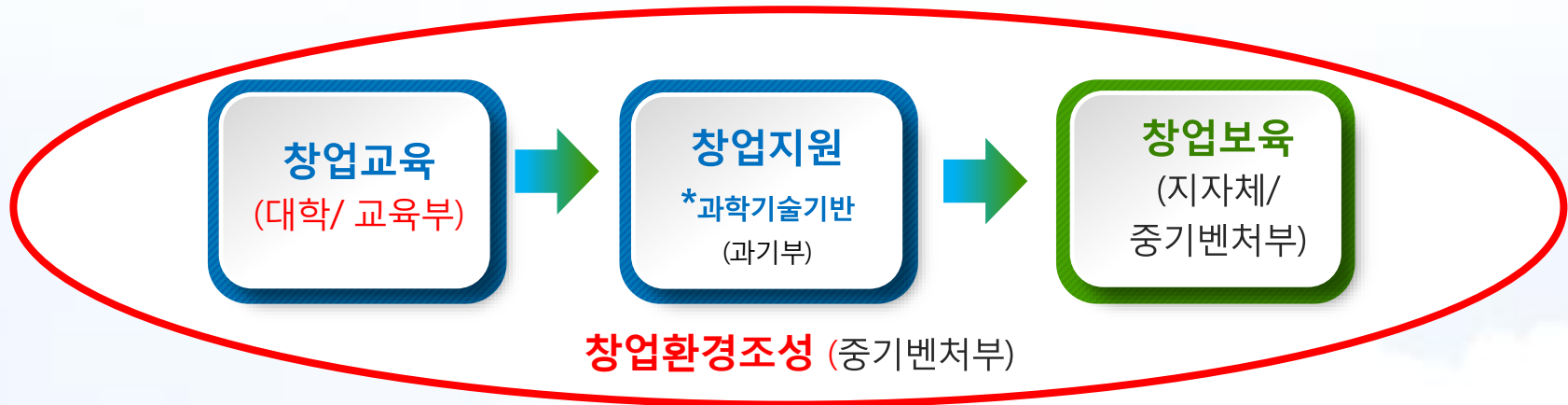
Palantir Technologies (미국) 2004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예측시스템을 개발 ▪ CIA, FBI, NSA, 미 군사조직 등에서 해당 솔루션 사용 ▪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출신 졸업생들이 창업 ▪ 현재 기업가치 약 24조 원 	
Mobileye (이스라엘) 1999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용 자동차(센서 및 카메라) 핵심기술 보유 ▪ 히브리대학 컴퓨터공학 교수들이 공동 설립 ▪ Intel이 17조 원에 인수('17) 	
iLLumina (미국) 1998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분석 및 DNA시퀀싱 관련 생명공학기술 보유 회사 ▪ 터프스(Tufts)대학 교수가 VC 투자를 기반으로 설립 ▪ 현재 기업가치 약 25조 원 	

3. 정부부처간 역할분담

대학의 **창업교육이나 창업활동과 연관된 각종 프로그램**(정부, 지자체, 기업 지원)은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나** 주요 정부사업은 아래와 같음.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소관 부처	비고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창업 교육	.창업교육지원 (창업아카데미)	대학생, 예비 및 3년 미만 기창업자	대학, 연구· 공공·민간기관	20.8	중기청	
	.대학 기업가센터	9개 대학 기업가센터 대학생, 교수 및 교원	대학	34.0	중기청	
	.창업대학원	창업학 석사과정 희망자	창업대학원	7.2	중기청	
	.스마트창업터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98.4	중기청	
	.공공기술기반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사업	대학 및 출연(연)의 참여 연구원으로 구성된 기술창업 탐색팀(I-Corps Team)	한국연구재단	37.0	과기부	
멘 토 링 · 컨 설 링	.벤처1세대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K-Global 창업멘토링)	ICT기반 창업초기·제도전기업, 대학창업동아리	(재)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29.9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육성(R&D)-이노폴리 스캠퍼스	현재 이공계열 및 창업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	대학, 기관	45.0	과기부	
	.IP 디딤돌 프로그램	예비창업자	-	26.0	특허청	
사 업 화	.창업인턴제	대학(원) 재학(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및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	창업진흥원 등	50.0	중기부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121.5	중기부	
	.창업선도대학 육성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창업선도대학	922.0	중기부	40개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만39세 이하의 창업3년 이내의 자(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500.0	중기부	
문화 행사	.벤처창업대전	벤처·창업기업, 청년기업 등	창업진흥원	2.3	중기부	
	.대한민국 창업리그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지방 중소기업청	14.0	중기부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	전 국민	한국발명진흥회	12.7	특허청	

3. 정부부처간 역할분담



<대학창업과 관련된 단계별 정부사업 현황>

구분		창업 준비	창업 후 1년	창업 후 1-3년
Low Tech	학부생	LINC+ (창업교육)		TMC (투자유치)
		기업가센터(창업교육, 창업조직)		
Middle Tech	대학원생	창업선도대학(창업교육, 사업화)		
		I-Corps (창업교육 및 시제품제작)		
High Tech	교원	BRIDGE(창업아이템 발굴)		

<스웨덴 내 Drivhuset 분포>



* 출처 : 대학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사업 개편방안(NRF Issue Report 2017-01)

감사합니다.

